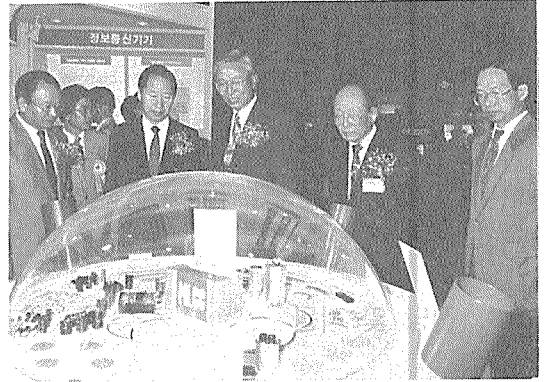


'91전자부품 및 생산장비 전시회 (KESPES '91)

('91. 5. 13 ~ '91. 5. 17)



'91전자부품 및 생산장비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는
귀빈들

'91국제전자부품 및 생산장비전시회 (KEPES '91) 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대한무역진흥공사 공동으로 '91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KOEX 본관 1층 태평양관에서 국내 140개사, 미국 등 외국업체 35개사가 참여하여 총400여종의 전자부품과 칩마운팅머신 등 첨단자동화설비 등이 선보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전시회는 각종 전자부품, 소재 그리고 자동화생산장비들을 전시하여 국제규모의 전문전시회로

각광을 받으며 국내·외의 신 신제품들이 대거 전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주요 전시품으로는 셋트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필수적인 반도체 칩저항기(Chip Resister), 칩콘덴서(Chip Capacitor), 칩코일(Chip Coil), 다층 인쇄회로기판(Multilayer P.C.B)과 각종 스위치류 및 센서, 광학부품 등 신제품 규격의 부품들이 눈에 띄었으며, 생산장비로는 칩마운팅머신(Chip Mounting M/C), 부품자동삽입기(Auto insertion M/C), 자동권선기(Auto Winding M/C), 자동납땜기(Auto Soldering M/C), 로봇 등 자동화장비가 다량 전시되어 전자업계와 생산자동화 촉진과 국산 생산장비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막 첫날인 13일에는 부대행사인 제 2회 전자부품신제품경진대회가 열렸는데

상공부장관상에는 (주) 세라텍 (High Voltage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삼성전기(주) (B/S 튜너), 대한노블전자(주) (가변저항기), 공업진흥청장상에는 희성금속공업(주) (접점재료), (주) 신평물산 (Electro-Luminescent Lighting) 벨튼연구소 (Electronic Reverberation Unit) 특허청장상에는 삼미기업(주) (8" 2Way 3speaker) 한국코아(주) (자동적층 콘트롤러) 미농상사(주) (Cream Solder Press Machine) 그리고 장려상에는 창성기업(C.S.E. French Antistatic Brush), (주) 우성바이콘 (Thermostat), (주) 원광전자(램프어레이) 등의 업체가 수상했다. 이번 신제품 수상은 중소전자부품업체에 기술인력의 사기진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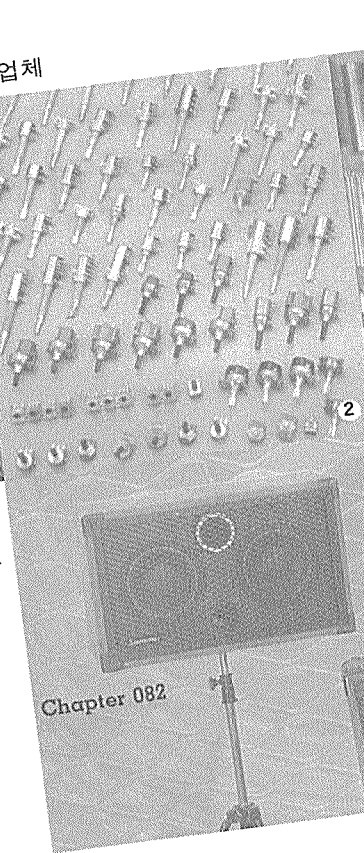
이들 신제품들을 전시한 전자부품업체들은 선진외국의 유명규격인 U/L, FCC, CSA, VDA, BSI, JIS 등 외국유명규격도 다수 획득하여 품질이나 성능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 시설자동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동전시회는 앞으로도 중소전자부품업체와 관련자동화 생산장비업체들의 전문시장으로 그 기반조성을 계속 확대해 나아가갈 필요성이 요구되어 지기도 했다. 또한 동전시회가 선진외국의 수입규제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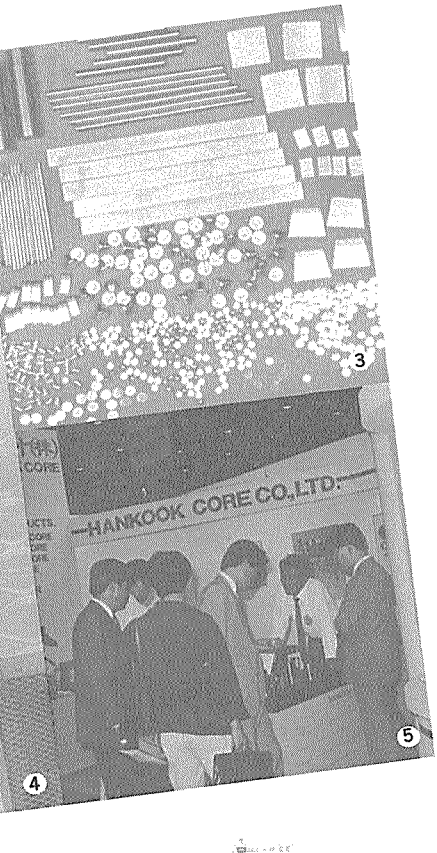
제 2 회 전자부품 신제품 경진대회 수상업체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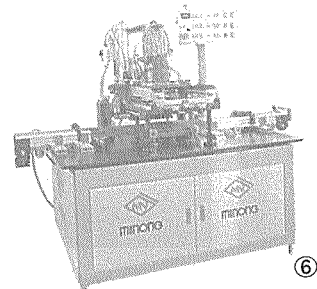
5

- ① (주) 세라텍
- ② 대한노블전자(주)
- ③ 희성금성공업(주)
- ④ 삼미기업(주)
- ⑤ 한국코아(주)
- ⑥ 미농상사(주)
- ⑦ 창성기업
- ⑧ (주) 원광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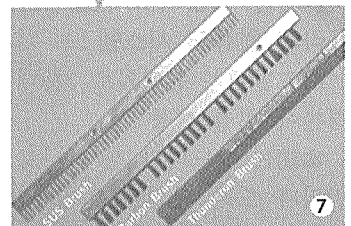
중소전자부품 업체의 수출증대와 수입제품으로부터의 내수시장 확대에도 충족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한편, 이번 전시회는 일본, 미국, 프랑스, 스위스, 서독, 홍콩, 대만 등 10개국에서 35개사가 참가, 앞으로 동구권에서의 전시 참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동전시회의 특징을 보면 칩레지스터, 캐퍼시터 등의 제품이 현저한 칩화 경향으로 나타났고, SMT부품 실장화 기술제품이 출품됐다는 점이고 모든 제품들이 경박단소화와 기술고도화 추세가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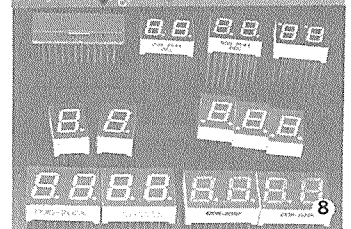
그리고 이번 전시기간 동안 바이어상담액이 2억 1,100만불, 관람인원은 8만 4,700여명 여명으로 급부상하여 이제는 전문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볼 수 있었다.



6



7



8